

철학사

73 19세기 경험주의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우리가 함께 서양 철학사를 탐구해 온 한 해의 여정, 특히 19세기와 20세기의 경험주의 약 200년에 걸친 4주간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도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임마누엘 칸트가 이룩한 일종의 종합을 통해 근대 경험주의와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이 종합에서 비롯된 두 가지 방법론의 구분은 오늘날까지 철학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합리주의는 주로 유럽 대륙에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헤겔, 실존주의 전통, 그리고 어느 정도는 화이트헤드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그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상들은 인간의 자기 인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려는 현상학적 방법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현상학적 방법론은 오늘날에도 유럽, 특히 서유럽 대륙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크, 버클리, 흄으로 대표되는 경험주의 전통은 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9세기에는 우리가 살펴볼 오귀스트 드 칸트, 존 스튜어트 밀, 에른스트 마흐 세 인물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은 에른스트 마흐입니다.

아니, 생각을 바꿔야겠군요. 이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은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인물은 에른스트 마흐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지속적인 경험주의적 접근 방식은 과학적 방법을 모든 종류의 인간 지식에 보편화하는 데 중점을 두게 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유럽 전통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는 창조적 자유를 지닌 인간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헤겔이든 사르트르든 듀이든 간에, 그건 타당한 일반화라고 봅니다. 반면에 19세기 경험주의자들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바라본 자연이라는 관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오늘날까지, 20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 대륙의 철학적 지배는 현상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영어권 철학의 지배는 경험주의였습니다. 20세기 초 밀만큼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 지식을 판단하는 데 과학적 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물론 두 분야를 비교하고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시도는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940년대 후반에 영국과 프랑스 철학자들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은 『분석 철학』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프랑스인들은 영어로 글을 쓰고, 영국인들은 프랑스어로 글을 쓰지만, 마치 밤에 스쳐 지나가는 배처럼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는, 약 5년 전 토론토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는 유럽 철학자들, 특히 프랑스인보다는 네덜란드인들이 많았고, 영미권 출신 철학자들이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밤에 스쳐 지나가는 배처럼 서로 스쳐 지나갔죠.

단순히 방법론이 다르고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유럽 사상에 분석적 철학자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미국 사상에 현상학적 사상가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학과들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대표자를 두려고 노력하죠.

우리엔 로버츠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만 그는 분석적 사고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죠.

비트겐슈타인뿐 아니라 키르케고르와 불트만에 대한 그의 연구 덕분에 이러한 상황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19세기 경험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며, 월요일에 20세기로 넘어갈 때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버트런드 러셀, 존 스튜어트 밀, 조지 어니스트 무어, 그리고 GE 무어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20세기 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19세기의 특징을 파악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세요. 계몽주의의 객관성이 확장된 것,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가설연역적 방법이라고 쓴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몽주의적 객관성 정신에 입각하여 과학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칸트식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가설연역적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 앞으로 점점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18세기 경험주의자들의 이전 계몽주의 사상은 당연히 경험적 일반화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연역적 추론을 도출했습니다.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와 같은 유럽 대륙의 합리주의자들을 살펴보면, 직관적이고 자명하며 선천적인 선형적 전제와 연역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계몽주의 사상의 방법론은 전제에서 출발하여 연역을 통해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형적 전제는 경험적 전제든 둘 중 하나입니다. 19세기의 선천적 관념 등은 의심스럽습니다. 경험적 일반화는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제를 반증할 수는 있지만,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귀납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적 일반화나 선형적 전제 대신, 가설을 전제로 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경험적 가설로부터,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무엇이 도출될까요? 이것이 바로 가설연역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실제 과학적 방법론에 훨씬 더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과 그의 귀납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그가 가설을 활용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설 없이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19세기에 등장한 보다 성숙한 접근 방식, 즉 가설 연역적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존 스튜어트 밀, 에른스트 마흐, 버트런드 러셀, 그리고 20세기 논리 실증주의에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과학은 가설보다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토마스 쿤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세요.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설 연역법이라는 그 방법을 인문학에 확장한 것이다. 이전에는 과학을 단순히 물리학과 천문학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화학이 이 분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생물학은 점차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이 인문학 분야로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에 적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윤리학에도 적용하여 윤리학을 경험 과학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죠. 바로 그것이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를 통해 추구했던 바입니다.

그는 경험적 과학 윤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 방법을 인간 지식, 즉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에까지 확장한 것이 일각에서는 과학주의 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 과학주의 말입니다 .

과학, 오직 과학만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주의입니다 . 물론, 유럽 대륙의 친구들은 이런 생각에 경악할 것입니다.

인간 정신은 어떻습니까? 현상학적 방법론은 어떻습니까? 사실, 후설이 소위 과학의 위기를 다루려고 했던 시도를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철학을 엄밀한 과학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가설적인 방법이 아니라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도출된 선험적 원리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과학적 방법이 전 지구적 범위로 확장된 결과는 현상론, 반실재론, 반형이상학의 발전입니다 . 네, 현상론은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현상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사물은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가 반실재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 실재의 본질적인 모습을 알지 못한다 .

그리고 특히 19세기에 나타난 현상은 형이상학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19 세기에 이러한 거부가 특히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형이상학의 본질이 현상과 본질의 구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표상론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형이상학을 바라보았는데, 이 이론은 형이상학이 표상하고자 하는 현실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브래들리 같은 사람들의 형이상학 저서 제목이 '외관과 실재'와 같은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브래들리의 저서 제목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실증주의 운동은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외관 뿐이라고 주장하며 실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글을 읽으면서 이 점에 주목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심신에 관한 질문, 즉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다면, 밀은 마음이란 단지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과 성찰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로 의미하는 것은, 음, 아마도 미래의 경험과 관련된 것, 즉 성찰의 영구적인 가능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감각의 영구적인 가능성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콩트, 밀, 마르크에 이르러서는 철저한 현상주의적 관점이 발전하게 됩니다.

버트런드 러셀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 중 어느 시대를 읽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그는 인간이 생각을 바꿀 권리를 옹호했고, 때로는 그 권리를 꽤 성공적으로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러셀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은 이 인물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프랑스인 오귀스트 콩트는 1857년에 사망했습니다. 슈툼프의 저서에는 콩트에 대한 장이 있고, 가드너의 선집에도 그의 작품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콩트의 작품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읽기도 쉽습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그의 3단계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의 통일성에 대한 그의 주장입니다.

자, 3단계 법칙은 과학사의 경험적 일반화를 그가 정립한 것입니다. 그는 경험주의자이고 과학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학사의 경험적 일반화를 제시하는 것이죠.

즉, 과학은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단계에서 사변적 단계로, 그리고 과학적 단계로 말입니다. 물론 종교적 단계에서는 신학, 신화 등이 생겨납니다.

허구, 상상 속의 허구들, 예를 들어 찰스 1세가 목숨을 잃은 왕의 신성한 의식 같은 것들 말이죠. 아니면 원시 정령숭배의 주술적인 숭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신의 섭리에 대한 개념들처럼요.

이것이 인간 정신의 상상력이 풍부한 유년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변적 단계입니다. 추상적인 관념, 구성물, 형이상학적 구성물, 예를 들어 보편자와 본질에 대한 이론 등을 다룹니다.

자연법 윤리학 과 법학. 자연권 이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등의 민주주의 이상은 결코 경험적 일반화에 불과하지 않다.

목적론, 연금술, 점성술, 그리고 최종 원인에 대한 개념들.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숨겨진 현실에 대한 추측성 이론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정신의 사춘기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단계로, 확실하게 알려진 것, 우리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다루는 단계입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정신의 성숙, 즉 성인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학적 단계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일반적인 포괄 법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일반 포괄 법칙은 모든 데이터를 포괄하는 경험적 일반화입니다. 일반 포괄 법칙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반 법칙, 즉 일반화를 바탕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과정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단계는 과학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과학의 발전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형이상학적 단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신학의 많은 부분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화학 역시 원시적인 물신숭배에서 연금술을 거쳐 과학, 즉 경험 과학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히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사회 변화에 대한 과학이다. 사회 변화에 대한 과학. 어쨌든 그는 19세기 전반의 프랑스에 살고 있으니까.

프랑스 역사를 아시는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변화에 대한 과학, 즉 실증적인 과학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학으로 알려진 학문의 시작입니다.

사회학 전공자 여러분, 학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학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오귀스트 코르네와 거의 동시대 인물, 혹은 그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생시몽이라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사회학은 철저한 실증 연구를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을 수용하고 주관성 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 10년에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막스 베버 같은 인물들의 영향이 컸죠. 오귀스트 코르네의 두 번째 강조점은 과학의 통일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모든 과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 모든 과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따릅니다. 자연 연구와 인간 연구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두 분야 모두에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통일성에 대한 칸트의 명제는 20세기 까지 지속된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이며 , 과학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듀이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재건축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 발전시킨 과학적 방법론을 사회 변화, 사회 문제 해결, 정치, 교육 등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과학의 통일성. 과학 간의 차이는 복잡성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학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발전 해야 합니다 .

심리학은 생물학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 생물학은 화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 화학은 물리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물리학은 수학을 기반으로 발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과학은 복잡성 측면에서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역사적으로 과학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순서대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정리한 오귀스트 드 칸트입니다. 가드너 선집을 가지고 계신지, 가져오셨는지 한번 보세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151 페이지에 있는 데카르트에 대한 그의 언급을 주목해 보세요.

모든 프랑스 철학자는 데카르트 연합에 회비를 내야 합니다 . 그리고 여기 칸트의 회비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실증 철학의 완전한 체계를 확립하는 영광스러운 공헌을 세상에 했지만, 그 모든 대담한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지적 및 도덕적 현상과 관련된 생리학적 부분을 포괄하여 자신의 철학을 완전한 논리적 확장으로 이끌어낼 만큼 시대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생리학 중에서 지적, 도덕적 현상과 관련된 부분. 그는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현상의 근본 이론에 방대한 역학적 가설을 세운 후, 동일한 철학적 정신을 동물 유기체의 다양한 기본 개념과 관계에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정과 지성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멈추고 그것들을 형이상학 적-신학적 철학의 부속물로서 특별한 연구 분야로 삼았습니다 .

그런 단어는 분명 나쁜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 그는 그 단어의 과학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후에, 그 단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2쪽 맨 아래에

보면, 그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 정서적 및 지적 기능에 대한 실증 이론입니다.

그것은 모든 직접적인 외부 장치와 분리된, 대뇌 신경절에 고유한 반사 관념, 뇌 생리학 등 내적 감각 현상에 대한 실험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로 구성됩니다. 그는 뇌 과학을 연구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바는 매우 명확하며, 과학적 방법의 이러한 확장을 통해 그는 존 듀이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했던 그런 종류 말이에요. 제 생각에 제 교수님 한 분이 예전에 세미나를 개설하시면서 실증주의와 실용주의는 결국 같은 것이고, 둘 다 막다른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해 되시죠? 둘 다 경험 과학의 한계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아주 간단해서 바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존 스튜어트 밀. 밀은 모든 경험주의자 중에서 가장 경험주의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로크나 흄보다 더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흄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에 관한 지식과 관념의 관계입니다. 관념의 관계는 분석적 진리, 즉 주어에 포함된 술어이며, 수학에서처럼 말입니다.

밀은 수학이 경험 과학이라고 주장합니다. 3 더하기 5는 8이라는 명제는 3과 5로 이루어진 모든 집합에 대한 경험적 일반화입니다. 따라서 해석적 진리는 실제로 경험적 일반화, 또는 경험적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법칙, 모순율, 동일성, A는 A이고 A가 아님은 A가 아니라는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경험적 일반화입니다. 다시 말해, 밀은 이러한 기본 원리들을 심리학적 일반화로 환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일반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설이 비판했던 심리학 주의의 의미입니다. 심리학 주의는 수학, 논리학 등에 적절한 토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심리학주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설이 맞서 싸웠던, 우리가 예상했던 종류의 것입니다. 하지만 밀은 이 논의에서 직관적 지식, 선천적 지식, 자명한 진리를 모두 부정합니다. 실제로 그의 인식론에 관한 저술 상당 부분은 스코틀랜드

실재론자 중 한 명인 윌리엄 해밀턴 경의 철학을 비판하는 글에 담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머스 리드의 전통을 잇는 스코틀랜드 현실주의자들은 자명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성향 덕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믿게 되는 진리 말입니다. 그런데 밀은 계몽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러한 진리는 충분히 확실하지 않고,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단순히 경험적 일반화일 뿐입니다. 원한다면 경험적 가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반화와 자명한 진리가 사실은 가설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밀이 어떻게 가설적 연역법을 발전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어떻게 경험주의자가 될 수 있고, 연역이 작동하는 원리를 경험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삼단논법은 전제뿐만 아니라 논리 법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추론, 즉 연결 관계도 갖춰야 합니다 . 그런데 논리 법칙이 경험적 일반화이고 전제 또한 경험적 일반화, 즉 가설이라면, 삼단논법은 사실상 경험적 지식을 조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귀납적 추론이 자연의 균일성, 귀납의 원리, 그리고 자연의 균일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밀이 이미 그 점을 지적했었죠.

밀에 따르면, 자연의 균일성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가장 광범위한 경험적 가설일 뿐입니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경험적 일반화인 거죠. 네, 그게 바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경험적인 절차입니다. 밀은 논리학 연구에서 많은 글을 썼고, 베이컨의 귀납적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존재표, 부재표 등을 기억하시죠?

위해 좀 더 세밀하게 정의했습니다 . 이것이 바로 그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에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가 물질의 본질에 대해 질문할 때, 그의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물질이라는 용어는 경험적 관점에서 볼 때, 감각의 영원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질적인 존재는 감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의 존재는 성찰이 영원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존 로크의 사상, 즉 감각에 대한 단순한

개념과 성찰에 대한 단순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크가 제시한 물질의 실체, 즉 기저로서의 실체에 대한 관점과, 정신이나 영혼의 실체를 비물질적인 실체, 즉 생각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버리는 것은, 그가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사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음, 이것은 마음을 단순히 지각의 묶음이라고 불렀던 데이비드 흄의 견해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그가 데이비드 흄만큼 회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흄이 우리가 마음에 대해 아는 것은 오직 지각의 묶음뿐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 현재의 지각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흄에게 있어 마음은 바로 이 현재의 지각들의 묶음일 뿐입니다. 현재의 경험 너머에는, 즉 이 지각들의 묶음 너머의 사실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로크는 기억을 통한 개인적 연속성과 정체성, 즉 과거에 대한 인식을 주장했는데, 흄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흄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밀은 '영구적인 가능성'이라고 말할 때, 물질이나 정신에 대한 경험적 일반화를 가설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각의 영구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성찰의 영구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현재의 지각들의 묶음 이상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연속성, 적어도 의식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는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있어요. 음, 이것과 장 폴 사르트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초월적 자아는 없다는 거죠.

내게 새롭게 인식되는 모든 순간들이 자아를 새롭게 창조한다. 이해되지요? 마치 자아란 나에게 있어 새로운 성찰과 새로운 경험의 영원한 가능성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19세기 영국 철학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론이 20세기 유럽 대륙 사상에서 사르트르가 도달한 결론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시다시피, 자아의 소멸입니다. 정말로요. 자아의 소멸입니다.

음, 바로 이것이 밀이 발전시킨 공리주의 윤리가 흔히 제기되는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입니다. 공리주의 원칙은 당연히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을 고통과 쾌락의 경험들의 집합체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단지 경험의 영원한 가능성에 불과하다면, 밀의 입장에서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아를 그런 식으로 인식 하고 좋은 경험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칸트 전통의 공리주의에는 인간 존중의 근거가 없습니다 . 간단히 말해서, 칸트는 인간을 단순히 경험의 묶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죠 ? 정의. 인권. 이런 단어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유용한 것들에 우리가 붙이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의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유용성 때문에 정의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선형적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본질적인 권리를 가진 인간 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 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존 스튜어트 밀은 형벌에 대한 공리주의적 이론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형벌이 응보주의적 관점에서만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응징적 처벌은 복수나 앙갚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응징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며, 사회 내에서 그에게 속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은 그러한 개념에 동의하지 않았고, 제레미 벤담의 도덕과 입법 원칙을 바탕으로 공리주의적 처벌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벤담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범죄자를 도덕적으로 유죄로 몰아세우지 않고, 범죄자를 교화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적어도 두 가지 처벌 이론이 존재합니다.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또는 이 둘을 결합한 형태 등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칸트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응보주의 이론을 제시했지만, 여기에는 목적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처벌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

네, 구원의 목적이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전부이고, 대체로 우리의 교정 시설은 공리주의적 처벌 이론에 따라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는 공리주의 윤리를 바탕으로 치료적 처벌 이론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벌이라고 부르지 말고 치료라고 부르자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에 부적응했기 때문에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주장은 개인의 책임을 더욱 경시하는 것처럼 보여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C. 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신은 재판대에 서다』에 실린 '인도주의적 처벌 이론'이라는 글을 통해 처벌이 인간성을 말살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개인을 행위에 대한 주체가 아닌,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유와 결정론이라는 철학적 문제가 이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밀은 자유와 결정론, 자유와 필연성이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형이상학을 반대하는 그는 필연론, 즉 오늘날에는 '강경 결정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주장을 거부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의 결정과 행동에는 충분한 원인이 존재하여 다른 어떤 결정이나 행동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연론. 선행 원인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이것은 그가 막을 수 없었던 현상주의적 인과관계에 대한 관점이다.

이는 우리가 흄이 말하는 필연적 연결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흄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필연론에 대한 거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는 오늘날 비결정론으로 불리는 자유의지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인간의 선택, 즉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고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끊임없는 접속사 사용 때문입니다.

흄의 용어는 능동적 의지를 포함하여 동기와 행동 사이에 관찰되는 지속적인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심리적 요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요인들과 행동 사이에는 끊임없는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연적 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바는 양립주의, 또는 온건한 결정론이라고도 불리는 일종의 관점입니다. 그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지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선택이 내적인 원인에 의해 제약받는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즉, 내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 즉 온건한 결정론은 그의 공리주의 윤리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 따라 쾌락이나 고통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요인에 반응한다면,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 반응하는 요인들은 그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공리주의적 접근 방식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의 공리주의 윤리는 이 문제를 매우 적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에 대한 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신념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즉, 신념은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뿌리 역시 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흄의 신념 심리학을 기억하시나요? 끊임없는 결합은 마음이 특정한 것을 기대하거나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흄의 신념 심리학은 데이비드 힐의 그것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의 이론도 마찬가지로인데, 가설 연역적 방법이 인문학, 즉 정신, 자유와 필연성, 윤리학에까지 확장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네? 어떤 행동의 쾌락과 고통의 결과를 예측하고 공리주의적 결정을 내리려면 일반적인 가설을 전제로 삼아야 해요. 그래서 그걸 인문학에 적용하는 건 아주 간단 하죠. 그리고 밀도 마찬가지로요? 에스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혼동하지 마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해 되시죠? 그가 말하는 '감각의 영구적인 가능성'이란, 우리가 의자, 책상, 잉크 마커, 인체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들리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존재하는 한 감각 경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감각 경험을 하게 될지, 제가 에스더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그건 우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실재하고, 살아있고, 육체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그녀가 눈에 보이는 존재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로서의 물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찰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의식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깨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사고하는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밀은 '존재'라는 개념을 버리고 '사고하는 존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형이상학적 가설을 피하고 경험적 가설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인간을 순전히 경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리적 감각 자료와 성찰적 자료를 통해서뿐입니다.

신체적 이야기는 신체적 감각 데이터로 전달되고, 내면의 정신적 이야기는 성찰 데이터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적 정보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에른스트 마흐에 대해 간단히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는 1916년에 사망한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입니다. 그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선정주의'입니다.

그는 『감각의 분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모든 경험의 대상을 관찰 가능한 감각적 속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는 메홀과 마찬가지로 현상적 대상, 즉 경험의 대상을 오직 감각 자료만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우리의 세계, 우리의 과학적 세계는 오직 감각, 즉 감각적 속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비경험적인 형이상학적 주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번째 점은 그의 저서 『역학의 과학』에서 드러나는데, 그는 과학 이론이란 감각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제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과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각 자료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둘째, 과학 이론은 감각 자료와 관련된 이론일 뿐입니다. 그렇죠? 감각 자료와 관련된 이론 말입니다. 감각 자료들 사이의 관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각 데이터를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하여 과학에서 다루는 대상들이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조화한 이상적인 대상, 즉 현상적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웨이스와 밀스의 이러한 과학관은 바로 도구주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과학 이론은 실용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재 그 자체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과학에 대한 고전적인 반실재론적 관점입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19세기 경험주의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알아볼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주 읽기 과제입니다. 다음 주 읽기 과제도 있는데, 월요일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 우리 반에 손님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